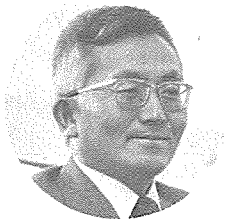


朝鮮後期 대표적 農學者

徐 有 渠

「林園經濟志」남겨
農事技術大百科辭典



朴 星 來

〈韓國外國語大교수·科學史〉

지금은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이렇다할 공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농업이 거의 유일한 산업이었다. 당연히 많은 학자들이 나라의 농업 문제에 관심을 보였고, 또 자기의 견을 기록해 남겼다. 조선 후기를 특징지어 주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여러가지로 사회개혁의 제안을 내 놓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들 학자들의 학풍을 우리는 實學이라 부르기도 한다.

◇實學者들의 共通 관심은 農業改革論

이들 실학자들의 공통된 관심의 하나가 바로 농업개혁론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 이름있는 실학 사상가가 모두 이 분야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관심이 주로 사회경제적인 것이어서 농토의 소유문제나 농민의 수탈, 그리고 신분적인 문제 등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에 농업기술의 문제도 또 다른 학자들에 의해 크게 관심을 끌고 있었다. 마치 조선왕조 초기의 세종 때에 많은 농업기술서가 출판된 것처럼, 17세기 중엽이래 많은 농업기술서가 여러 학자에 의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申夙의 <農家集成>이 1655년에 나온것을 비롯하여, 朴世堂의 <穡經>(1676), 洪萬選의 <山林經濟>(1700?) 등이 그것이다. 특히 1798년에 정조는 전국에 농서를 구한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많은 책이 정부에 제출되었다. 朴齊家와 朴趾源의 농업개혁사상은 이 때에 제시된 것으로 유명한 것이다.

과학기술사의 측면에서 이 기간의 여러 농업기

이름있는 實學者들이 주로 社會·經濟的인 문제로서 농토의 소유문제, 농민의 수탈 등에 관심을 집중하였던 반면에 農業技術의 문제도 다른 學者들에 의해 크게 관심을 끌고 있었다. 농업개혁사상은 이때 제시된 것으로 유명한 것.

實學 3代인 그의 家門의 흐름이 그로 하여금 이런 研究에 몰두하게 했을 것이다. 祖父는 故事新書의 農圃門을, 父親은 海東農書를 집필했다. 또한 그는 오랜 지방관 생활을 통해 농촌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꼈던 때문이다.

술서 가운데 가장 크고 상세한 내용을 갖춘 책을 고른다면 徐有渠(1764-1845)의 <林園十六志>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만년에 완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책은 113권으로 되어 있는 농촌 생활 및 농사기술의 백과사전격이다. 16편으로 나누어져 있다해서 16지라 불리우는데 <林園經濟志>또는 <임원경제십륙지>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 책 하나라도 서유구의 이름은 두고 두고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농학자로 일컬어 질 것이다.

서유구도 실학자라는 분류로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그는 다른 실학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배경 속에서 그의 학문을 계속했다.

대개의 실학자들이 권력의 자리에서 소외된 양반출신이었다는 것과는 달리 서유구의 집안은 대대로 큰 벼슬을 했고, 또 그자신 역시 관운이 아주 좋았던 편이어서 성균관 대사성, 사헌부 대사헌, 이조·예조·병조·형조의 판서, 의주부윤, 양주목사 등 안팎의 요직을 두루 지낸 인물이었다.

◇다른 實學들과는 달리 요직을 두루 지냄

이렇게 평생을 관직에 있었던 그가 이렇게 중요한 책을 완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집안의 전통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실학 3대라 부를 수 있는 가문의 흐름이 그를 이런 연구에 몰두하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達成 徐씨인 그의 할아버지 徐命膺(?-1787)은 대제학을 지냈고 북경에 사신으로 다녀온 일도 있다. 그는 <故事新書>의 農圃門을 집필할 정도로 이 방면에 통달하고 있었다. 또 그의 아버지 徐浩修(1736-1799)는 이조판서를 지낸 실학자로 1790년에는 부사로 북경을 다녀 왔다. 같은 해 북경에 동행한 실학자로는 박제가와 유득공도

있었다.

서호수는 천문학자로도 대단한 수준에 있었던 것 같다. 1796년 출판된 <國朝曆象考>에는 당시 관상감 제조였던 그의 서문이 있고, 북경에서는 그가 쓴 천문학서를 중국 학자에게 보여주고 논평을 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海東農書>를 써서 농학 3대의 가문을 이어 준 셈이었다.

그가 농업기술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런 가문의 전통과 함께 그의 오랜 지방관 생활을 통해 농촌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꼈던 때문이었다. 서유구는 특히 고구마를 우리 나라에 보급한 공로로 기억될만 한데, 이것 역시 그의 지방관 생활에서 얻은 농민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1834년 그는 호남에 순찰사로 나갔다가 오랜 기근으로 고생하는 농민들을 위해 일본에 가는 사신편에 고구마를 구해다가 보급시켰다.

◇種譜를 譜述하여 고구마 재배법을 홍보

처음 우리나라에 고구마가 보급된 것은 1763년 일본에 다녀온 통신사 趙殿이 부산과 동래지역에 처음 고구마를 보급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어서 서유구의 새로운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었다. 그는 이를 보급하기 위해 <種譜>라는 책까지 써서 고구마 재배법을 널리 알렸다.

농사 기술의 보급을 위해 서유구는 屯田論을 주장했다. 서울은 물론 각 지방에 둔전을 만들고 각 둔전에 농사기술이 좋은 각 지방 농민을 모아 농사를 짓게 하면 저절로 서로 기술의 교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다. 가령 경상도 농민의 논농사기술과 평안도 농민의 밭농사기술을 서울 농민이 함께 익히게 되어 몇 년 뒤에

농사기술의 보급을 위해 主田論을 주장. 각 지방에 둔전을 만들고, 각 둔전에 농사기술이 좋은 각 지방 농민을 모아 농사를 짓게하면 저절로 기술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農事技術의 개량에 機械의 힘을 이용할 것을 주장했다. 백성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잠에도 기계가 필요하고 일반농사에도 기계가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향에서 농업 이외에 공업에 대한 관심도 엿볼 수 있다.

이들이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전국의 농사기술이 고르게 퍼져 좋은 기술을 서로 채택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는 또 목축과 양잠의 중요함을 강조한 점에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다. 압록강 연안에서는 목축이 성하여 백성이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한 그는 이와 같은 중국의 예를 좇아 우리는 압록강 남쪽이나 그 밖의 넓은 풀밭에 목장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염소를 압놈 100마리와 숫놈 10마리만이라도 사서 목장을 시작하자고까지 말했다. 또 중국으로부터 우수한 뽕나무를 들여다가 전국에 보급하여 양잠을 장려하자는 것도 그가 주장한 것의 하나였다.

◇牧畜·養蠶의 장려와 水利의 중요성 강조

가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농작물의 정상적인 재배를 위해서 옛 사람들이 하나같이 애쓴 것으로 水利문제가 있다. 서유구 역시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웃 나라보다 이 방면에서 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수장치 사용이 필수적이라 주장. 다른 실학자들도 그런 태도였지만 서유구는 수리를 비롯한 여러 방면의 농사기술개량에 기계의 힘을 이용할 것을 말하고 있다. 백성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잠에도 기계가 필요하고, 일반농사일에도 기계가 크게 도움되리라는 것이었다.

이런 경향을 보더라도 서유구가 농업 이외에도 상업이나 공업에도 관심을 가졌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될 것도 같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달리 나라의 수입이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만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에서는 광산, 소금, 술, 차 등에 까지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광업, 상업, 공업의 진흥은 나라의 수입을 늘여 줄 뿐 아니라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의 발달임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는 800가지 이상의 참고서를 바탕으로 그가 만년에 완성한 책이다. 이 책은 16편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만이 아니라 농촌생활의 모든 경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농촌생활 대백과사전”같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林園經濟志는 말년에 완성한 책

우선 우리 농업의 전반적 특징에 대한 소개가 있으며, 이어 곡식은 물론 채소와 약초, 인삼, 화초, 과일, 차, 담배 등의 재배법이 설명되어 있다. 다음은 양잠과 베짜기등 전통적인 직조기술이 설명되어 있다. 농촌의 제사지내기와 기상관측과 농업의 관계등이 설명된 다음으로는 목축, 사냥, 물고기잡이 등이 나온다. 음식만들기와 집짓기, 그 밖에 각종의 장신구와 화장품에 관한 부분이 있다. 육아법과 섭생, 그리고 의학전반이 소개되고, 선비들의 취미생활로 몇가지가 설명되어 있다. 풍수지리에 의한 집터와 샘터고르는 방법도 소개되었고, 각 지방의 장날 날자와 특산물이 소개되었으며, 서울로부터 각 지방까지의 거리가 “八域程里表”로 남아있다.

가문 3대에 걸친 농업에의 관심은 서유구로 하여금 <임원16지>라는 방대한 농업기술서를 후세에 남기게 해 주었다. 號를 楓石, 字를 準平이라 했던 서유구는 그의 대표작 <임원경제지> 이외에도 <楓石集>이란 문집을 후세에 남겼다. 아직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조차 되어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林園經濟志는 농업의 전반, 양잠과 베짜기, 기상관측, 조리법, 집짓기, 목축, 사냥, 육아법과 섭생, 풍수지리는 물론 서울에서 각 지방까지의 거리를 기록한 농촌생활대백과사전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